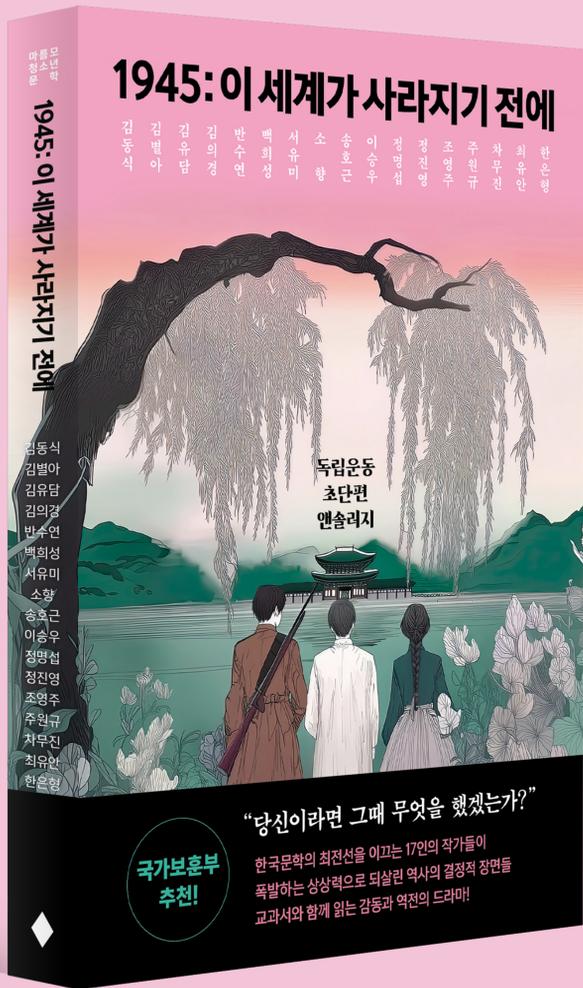


한 학기 한 권 읽기 독서활동지

작성 권유정(서울 자운고등학교 사서교사)



1945: 이 세계가 사라지기 전에 독립운동 초단편 앤솔러지

김동식 김별아 김유담 김의경 반수연 백희성 서유미 소향 송호근 이승우 정명섭 정진영 조영주 주원규 차무진 최유안 한은형

책소개

1945년 광복,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까지
일제강점기 어둠을 깬 17개의 이름과 사건을
17편의 초단편소설로!

- 흰웃을 입은 채 암살된 김구 선생의 말 못 할 비밀
- 3·1운동 당시 서대문형무소의 처절한 ‘떡묵방’
- 영화 <암살>의 주인공 남자현이 손가락을 끊어 쓴 혈서
- 간도 15만 원 탈취 사건의 주역 윤준희
- 손기정의 가슴에서 일장기를 지운 일장기 말소사건
- 여성 독립운동 단체 근우회와 가짜 여학생 이야기
- 갓 태어난 아들의 침상에 독립선언서를 숨긴 테일러
- 남자보다 총을 더 잘 쏘는 여성 독립운동가 박차정

●
●
●

《1945: 이 세계가 사라지기 전에》는 한국 독립운동사의 결정적 장면들을 ‘초단편’이라는 형식으로 불러낸 최초의 소설집이다. 김구, 3·1운동, 손기정, 일장기 말소 사건처럼 널리 알려진 인물과 사건들은 물론, 생존 애국지사 이하전, 오성규, 이석규, 근우회로 상징되는 여성들의 조직적 각성을 비롯, 이름 없는 수감자와 남겨진 가족들까지 역사에서 잊혔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낯선 얼굴들을 나란히 세운다. 이 책은 과거를 기억하는 데 멈추지 않고, 지금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되묻는다.



독서 계획

진행 차시	활동 내용	
1	서문 읽기, 생각 열기	독서 전
2	차례로 먼저 살펴보는 《1945: 이 세계가 사라지기 전에》	독서 전
3	얼마나 알고 있나요? 독립운동과 일제강점기 배경지식 떠올리기	독서 전
4	《1945: 이 세계가 사라지기 전에》가 알려주는 독립운동과 일제강점기	독서 후
5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독립운동 이야기 : 여성과 독립운동	독서 후
6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독립운동 이야기 : 언론과 독립운동	독서 후
7	세계지도로 정리하는 17편의 이야기	독서 후
8	시로 읽는 독립운동	독서 후
9	느티나무가 버드나무에게	독서 후



1차시: 서문 읽기, 생각 열기

여러분이 읽게 될 책 《1945: 이 세계가 사라지기 전에》는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요? 책을 읽기 전에 <들어가며>(p.4~7)를 함께 읽어봅시다. <들어가며>에는 이 책의 주제와 분위기, 독자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대한 중요한 힌트가 담겨 있습니다. <들어가며>를 바탕으로 이 책이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어떤 부분에 주목하며 읽을지 생각해봅시다.

1. 《1945: 이 세계가 사라지기 전에》는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요? <들어가며>를 읽고 추측하여 적어봅시다.

2. 《1945: 이 세계가 사라지기 전에》를 읽는 과정에서 놓치지 않고 살펴보고 싶은 부분은 무엇인가요? 그 이유를 함께 적어봅시다.

3. 서문에서 말하는 역사, 역사의식, '살아 있는 역사'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보고, 각 용어를 자신의 말로 정의해봅시다.

	어떤 뜻일까요? 자신의 말로 정리해봅시다.
역사	<p>서문에서 역사는 연도, 사건, 결과로 정리된 사실 그 자체를 의미한다. 즉 교과서와 역사서에 기록된 객관적 사실이자 기록이다.</p>
역사의식	<p>역사의식은 역사적 사건을 통해 인간의 감정과 경험을 느끼게 되는 인식이다. 글에서 말하는 그 현장에서 전해 받는 전류와 같은 감동이 바로 역사의식에 해당한다. 이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아는 데서 나아가, 당시 사람들의 심정과 고통을 상상하고 공감하는 상태를 뜻한다. 다시 말해 사실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p>
'살아 있는' 역사	<p>'살아 있는' 역사는 이야기와 서사를 통해 독자가 역사 속 인물의 자리에 서서 생각하고 느낄 때 완성되는 역사이다. 이야기는 독자를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당사자로 만들며, 그 순간 역사는 과거의 기록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에도 의미를 지니는 경험이 된다. 이렇게 감정이입을 통해 자신과 연결된 역사는 지금의 나에게 영향을 주는 '살아 있는 역사'가 된다.</p>



2차시: 차례로 먼저 살펴보는 《1945: 이 세계가 사라지기 전에》

《1945: 이 세계가 사라지기 전에》를 본격적으로 읽기 전에 먼저 차례를 살펴봅시다. 차례에는 이 책에 담긴 이야기의 흐름, 각 작품이 다루는 인물과 사건에 대한 단서가 담겨 있습니다. 그 인물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시대적 상황 속에 놓여 있었는지, 혹은 그 사건이 왜 일어났고 그 결과는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아래 내용을 정리해봅시다.

① 17편의 작품 중에서 가장 궁금한 작품의 제목을 적어봅시다.

② 이 작품이 가장 궁금한 이유를 적어봅시다.

③ 작품의 마지막 실린 인물 설명을 읽고 조사한 내용을 적어봅시다.



3차시: 얼마나 알고 있나요?

독립운동과 일제강점기 배경지식 떠올리기

1. '독립운동과 일제강점기', 브레인스토밍으로 배경지식 떠올리기

독립운동과 일제강점기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인물, 사건, 장소, 단어, 장면 등 형식에 제한을 두지 말고 알고 있는 배경지식을 자유롭게 적어봅시다. 이 활동은 맞고 틀림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억과 배경지식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후 두 번째 활동을 통해, 자신이 적은 내용 가운데 사실에 근거한 정보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을 함께 구분해볼 예정이니, 부담 갖지 말고 떠오르는 것을 최대한 많이 적어보세요.

2. 배경 지식 점검하기 : 정보의 정확성 확인

앞의 '배경지식 떠올리기' 활동에서 자유롭게 적었던 내용 중에서, 그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혹은 왜곡되거나 부정확한 정보는 없는지 확인해봅시다. 관련 자료를 찾아 잘못된 내용이 발견되면 올바른 내용으로 수정해보세요.

내가 적은 내용	정확한 정보 인가요?	어떤 자료를 참고해 확인했나요? (책, 신문 기사, 백과 사전, 인터넷 등)	정보가 잘못되었다면 올바르게 수정해보세요.
	예 — 아니요		



4차시: 《1945: 이 세계가 사라지기 전에》가 알려주는 독립운동과 일제강점기

1. 마음에 남은 이야기 하나

우리가 교과서에서 읽었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와 달리, 이 책은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이름 없는 이들과 잊혀진 독립운동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교과서에서 비교적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던 다양한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읽으며, 가장 인상 깊었던 작품의 소재(독립운동가, 단체, 사건 등)를 하나 골라 그 이유와 함께 기록해봅시다.

가장 기억에 남는 독립운동가 단체 조직 사건은 _____	
어느 작품에 실려 있나요? 작품 제목을 적어보세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작품에 담긴 역사적 배경과 실제 사건을 중심으로 정리해보세요.	시기
	연관 인물
	사건 요약
작품에서 문학적 요소로 역사적 사실과 다르게 표현된 부분이 있나요? (있다면 무엇이 사실과 다른지 적어보세요.)	

2. 수정하고, 덧붙이고, 다시 생각하기

3차시에서 적은 '배경지식 떠올리기' 내용을 다시 펼쳐봅시다. 읽기 활동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이 적은 내용을 추가·수정·보완해봅시다. 이전과 달라진 나의 생각을 덧붙여 적어봅시다.





5차시: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독립운동 이야기

— 여성과 독립운동

독립운동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누구인가요? 안중근 의사나 김구 선생님과 같은 인물을 쉽게 떠올리곤 합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독립운동가의 모습은 이처럼 대부분 남성입니다. 그렇다면 여성 독립운동가는 어떤 사람을 떠올렸나요? 《1945: 이 세계가 사라지기 전에》를 읽은 여러분이라면, 근우회와 박차정, 남자현, 그리고 이사벨라 멘지스를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총을 들고 싸우는 방식만이 아니라, 조직을 만들고 사람들을 연결하며 교육과 지원을 통해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여성들입니다. 네 가지 이야기를 다시 돌아보며, 여성의 독립운동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살펴봅시다.

1. 작품 〈철야: 글 쓰는 무장투쟁가, 박차정〉을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해봅시다.

① 박차정은 글을 쓰는 재능이 있었음에도 문학의 길보다 직접적인 독립운동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시 답안: 문학보다 직접적인 독립운동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과 책임을 자각했기 때문이다. 나혜석에게서 작가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았지만, 두 오빠가 독립운동으로 옥고를 치르고 자신 역시 독립운동가 가문에서 자라며 일제의 폭압을 몸으로 겪은 그녀는, 방 안에서 글만 쓰기보다는 지금 당장 행동으로 맞서야 한다는 절박함을 느꼈을 것이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박차정은 개인의 문학적 꿈보다 나라의 독립을 우선하며 직접적인 독립운동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을 것이다.

② 하나가 “선생님, 목숨 바쳐가며 나라를 지켰는데 젊은 나이에 죽고 이렇게 외롭게 홀로 서 있으니 박차정이 얻은 게 뭐예요?”라고 묻자, 선생님 정미는 말없이 웃으며 그 답은 소현과 하나가 살아가며 자연스럽게 찾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박차정은 무엇을 얻은 걸까요? 혹은 정말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일까요?

* 정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세요.

예시 답안: 박차정은 자신의 재능이었던 문학의 길도, 평범한 삶도 누리지 못한 채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쳤지만, 살아 있는 동안 그 결실을 직접 보지 못했고, 오랜 시간 이름조차 제대로 기억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얻은 것은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독립운동가들이 감내해야 했던 희생에 대한 대가가 개인에게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준다.

③ 박차정은 무장투쟁뿐 아니라 근우회에서 활동하며 여성 독립운동을 이어갔습니다. 근우회는 어떤 활동을 한 단체일까요? 근우회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 <가짜 여학생> 및 박차정과 관련된 인터넷 자료를 참고하여 정리해보세요.

※ 박차정과 관련한 인터넷 참고문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21238>

— 공훈전자자료관 <https://e-gonghun.mpva.go.kr/user/IndepCrusaderDetail.do?goTocode=20003&mngNo=9263>

— 부산일보 유튜브 <https://youtu.be/nhnpfcdi9Xg?si=NW9vNiNqpywFXf5i>

※ 학생이 스스로 정보를 요약 및 정리해보는 활동으로, 요약 및 정리 예시만 간단히 제시하였습니다.

1. 박차정에 대하여

박차정(1910~1944)은 일제강점기 동안 여성 독립운동가이자 무장투쟁가로 활동한 인물이다. 부산 동래 출신으로, 독립운동에 헌신한 가족의 영향을 받아 어린 시절부터 강한 민족의식을 키웠다. 학생 시절부터 항일 학생운동을 주도해 여러 차례 옥고를 치렀으며, 문학적 재능을 지녔지만 개인의 꿈보다 나라의 독립을 우선하며 행동으로 저항했다.

2. 일신여학교 시절 박차정의 항일 학생운동

박차정은 동래여고의 전신인 일신여학교 재학 시절부터 항일 학생운동을 주도했다. 학교 안팎에서 항일 활동을 이끌다 여러 차례 체포되어 투옥되었다. 이 시기에 교지에 소설 <철야>를 발표해, 독립운동가 가족의 고통과 현실을 상징화하였으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겨내겠다는 민족 해방에 대한 강한 염원을 담고 있는 문학 작품이다.

3. 박차정과 근우회

박차정은 근우회 중앙집행위원회 상무위원으로 선출되어 출판과 선전 활동을 맡으며 핵심 간부로 활동했다. 이 시기 근우회는 1929년 광주학생항일운동 이후, 1930년 1월 서울 여학생 시위를 배후에서 조직하고 지도했다. 박차정과 허정숙은 여러 여학교의 동시 시위를 통해 구속 학생 석방과 민족적 항의를 보여주자는 데 뜻을 모았고, 이로 인해 11개 여학교가 참여한 시위가 벌어졌다. 박차정은 배후 조직자로 지목되어 구속·취조를 받았으며, 이후 재검거되기도 했으나 최종적으로는 불기소 석방되었다. 다만 석방 이후에도 지속적인 감시를 받았다.

4. 박차정과 의열단

1930년 박차정은 오빠 박문호의 도움으로 중국으로 망명해 의열단에 합류하였다. 베이징에서 김원봉이 이끌던 의열단과 함께 활동하며 조선공산당재건설동맹 중앙위원으로 참여했고, 1931년 김원봉과 결혼한 뒤에는 의열단의 핵심 인물로 활약했다. 이후 난징으로 이동해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 설립을 준비했으며, 개교 후에는 여자부 교관으로서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교육과 훈련을 담당했다. 이 시기 박차정은 임철애라는 가명으로 활동했다.

2. 작품 <조선 여자 남자현: 손가락을 끊어 피로 쓴 독립 염원>을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해봅시다.

① <조선 여자 남자현>의 화자는 누구인가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조선 여자 남자현>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화자는 빅터 불워 리턴이다. 그는 국제연맹 중일 분쟁 조사위원회의 일원으로 활동했다.

② 남자현이 자신의 손가락을 자르고 혈서를 써서 뜻을 전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정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세요.

예시 답안: 남자현이 자신의 손가락을 자르고 혈서를 써서 뜻을 전한 이유는, 조선의 독립 의지가 말이나 글만으로는 세계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현실을 누구보다 절실히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의 감시 속에서 조선인의 목소리는 쉽게 지워지고 무시되었고, 평범한 탄원이나 문서는 국제 사회의 관심을 끌기 어려웠다. 그래서 남자현은 자신의 신체를 희생하는 극단적인 방식으로라도 조선의 독립 의지가 결코 가볍지 않으며, 생명을 걸 만큼 간절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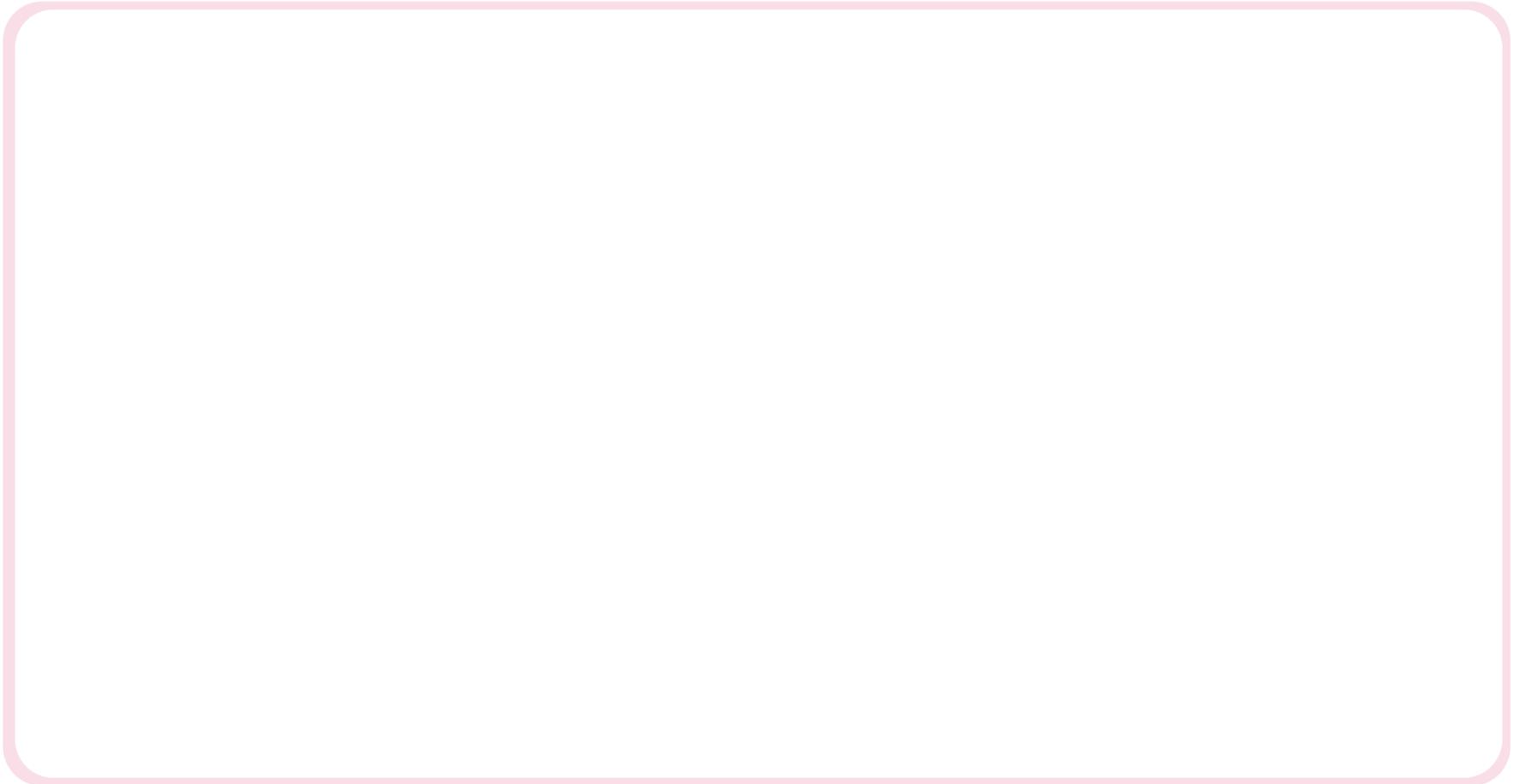
③ 화자는 귀국한 뒤 정치인으로 바쁘게 지내면서도 가끔 만주에서의 일을 떠올립니다. 특히 “그 조선 여성의 눈빛과 끊어진 손가락 마디, 피로 쓴 글씨”를 기억하며 마음이 불편해졌다고 말합니다. 화자가 이러한 감정을 느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정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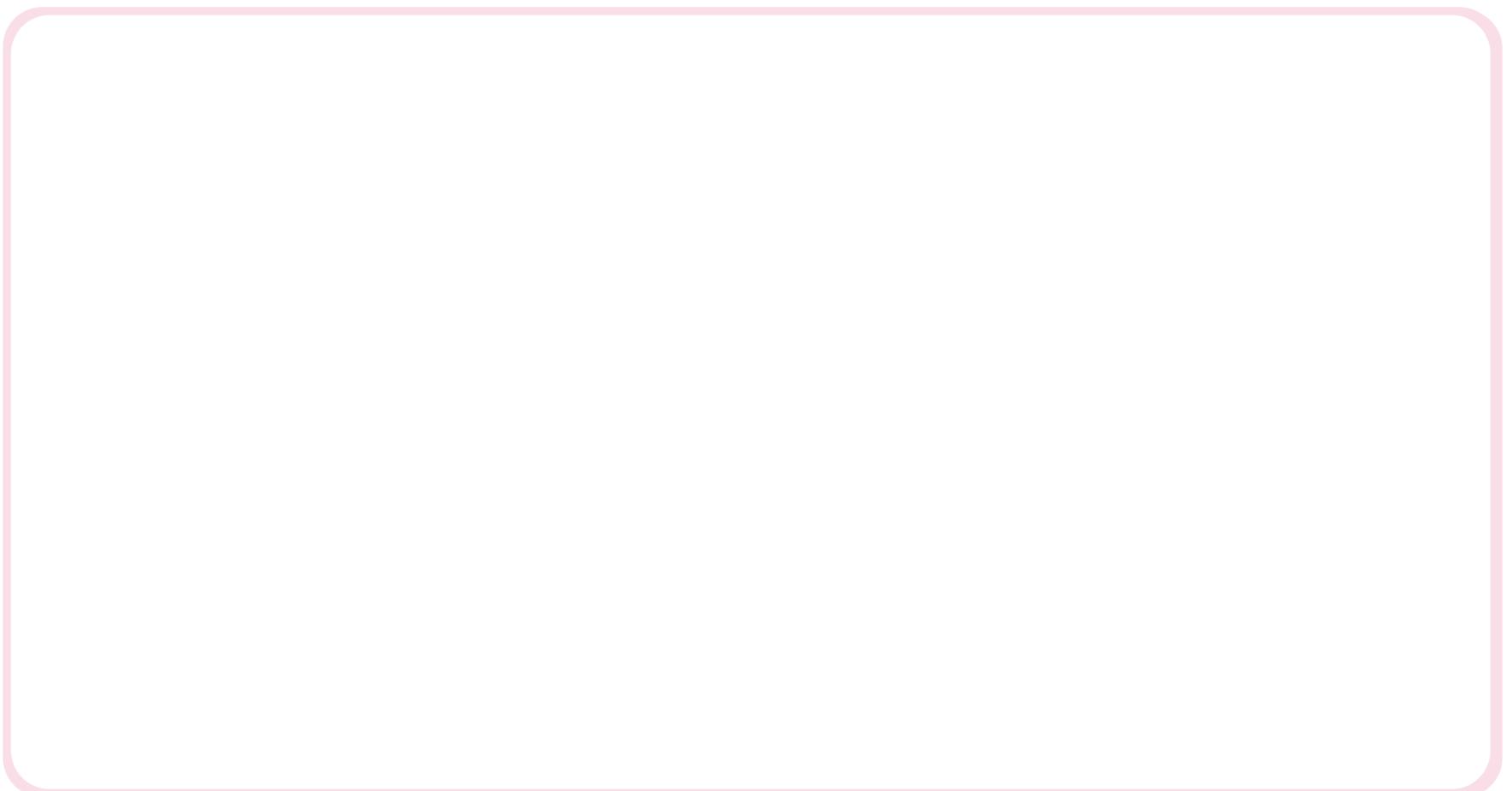
예시 답안: 화자가 만주에서의 일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졌던 이유는, 남자현의 행동과 모습이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과 태도를 끊임없이 되돌아보게 만드는 기억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당시 남자현의 혈서와 희생을 직접 보고도 공식 문서에 그 뜻을 담지 않았고, 그 판단이 절차적으로는 옳았다고 스스로 합리화하였다. 그러나 피로 쓴 글씨와 잘린 손가락, 무엇보다도 그 결연한 눈빛은 조선 독립의 절박함을 몸으로 증명한 것이었기에, 쉽게 잊히지 않았을 것이다.

3. 작품 <내 이름은 민지사, 조선 여인들을 돕지요: 여성 교육으로 항일정신을 일깨운 이사벨라 멘지스>을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해봅시다.

① 이사벨라 멘지스는 조선 여인들이 '여성'이기 때문에 멸시받고 배움에서 배척되어왔다고 말합니다. 당시 여성들의 삶에는 어떤 제약이 있었을까요? 당시의 시대 상황을 조사해서 정리해봅시다.



② 멘지스는 왜 '교육'을 조선 여인들을 돕는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선택했을까요? 당시 여성의 현실과 연결해 생각해 보세요.



③ <세계를 주목시켰던, 그러나 잊혀진 3.1운동의 소녀들> 영상을 시청하며, 대한민국 곳곳 용기 있는 여학생들의 움직임을 함께 살펴봅시다. ※ 영상 자료 <https://youtu.be/vOYttCVvjmQ?si=IZB0PnORxsHX6zEU>

③-1. 영상을 시청하며, 대한민국 여학교 곳곳에서 일어난 3.1운동을 적어봅시다.

- 서울 - 1919년 3월 1일, 경기여고보, 정신여학교 만세 운동
- 서울 - 1919년 3월 1일, 배화여학교 학생대표 김정애를 중심으로 학생들은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기 위해 철조망을 뚫고 학교 밖으로 나가 시내 곳곳에 뿌리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3월 1일 오후 1시경, 이를 눈치챈 일본 경찰이 학교에 들이닥쳐 주동 학생들을 색출하려 했다. 주동 학생들은 몸을 피해 체포를 면했지만, 결국 3월 10일 전국의 모든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지게 되었다.
- 개성 - 1919년 3월 3일, 호수돈여학교(현재는 대전에 위치하고 있다.) 교사와 학생들로 꾸려진 비밀결사대가 있었다. 당시 개성에는 2월 28일에 독립선언문이 전달되었으나,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했다. 하지만 호수돈여학교 비밀결사대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전면에 나서면서 개성에 만세 시위가 조직되었다.
- 서울 - 1919년 3월 5일, 서울 학생연합
- 군산 - 1919년 3월 5일, 영명학교, 멜볼딘여학교
- 평양 - 1919년 3월 8일 송의여학교
- 대구 - 1919년 3월 8일 신명여학교, 계성학교
- 광주 - 1919년 3월 10일 수피아여학교, 송일학교
- 부산 - 1919년 3월 11일, 부산진일신여학교
- 전주 - 1919년 3월 13일, 기전여학교, 신흥학교
- 목포 - 1919년 4월 8일, 정명여학교, 영흥학교



③-2. 3월 1일부터 4월 27일까지의 여학생들의 만세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3월 1일부터 4월 27일까지 여학생들의 만세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이유는 교육과 종교를 통해 형성된 자각과 연대의 힘 때문이다. 당시 유교적 질서 속에서 여성은 사회적·정치적 주체로 인정받기 어려웠지만, 여성 교육과 종교는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 여학생들은 학교와 교회를 중심으로 새로운 사상과 정보를 접하며, '비록 여학생이고 여성의 몸이지만 우리 역시 국가의 일원'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고, 이를 비폭력적인 만세 시위로 표현했다.

최초의 여학교가 설립된 지 약 30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여학생들은 민족의 현실을 자각하고 독립운동에 참여함으로써 스스로를 독립운동의 주체로 세웠다. 실제로 3·1운동에 참여했던 이화여고보 학생 노예달은, 독립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조선인 모두에게 기쁜 일이기에 참여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처럼 여학생들의 만세 운동은 남성 중심 사회에서 주변에 머물던 여성들이 처음으로 조연이 아닌 주역으로 나선 역사적 사건이었다. 여학생들은 행동을 통해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위한 투쟁 앞에서는 남녀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었고, 그 힘이 전국적인 확산으로 이어졌다.

③-3. 영상을 보고 난 뒤,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무엇인가요? 그 장면이 가장 인상 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Blank space for student response.

※ 참고자료

—공훈전자자료관

<https://e-gonghun.mpva.go.kr/user/IndepCrusaderDetail.do?goTocode=20003&postYear=2024&postMonth=03>

—유튜브 영상 <2024년 3월 이달의 독립운동가 마가렛 샌더먼 데이비스, 이사벨라 멘지스, 데이지 호킹>

https://youtu.be/Exmjsj_B1lM?si=kWflmfVFQvfaaVzp

6차시: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독립운동 이야기

—언론과 독립운동



독립운동에는 거리에서의 투쟁뿐 아니라, 기록하고 전하며 알리는 노력이 함께했습니다. 조선의 현실을 세계에 전달한 언론은 또 다른 방식의 독립운동이었습니다. 이번 활동에서는 조선의 상황을 세계에 알린 앨버트 테일러와 메리 테일러의 이야기, 그리고 1936년 베를린올림픽에서 손기정 선수의 가슴에 달린 일장기를 지워 보도한 일장기 말소 사건을 함께 돌아봅니다. 두 사례는 모두 무기를 들지 않았지만, 기록과 보도를 통해 저항한 언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들의 선택과 행동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보고, 독립운동에서 언론이 수행한 역할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1. 두 가지 이야기로 살펴보는 언론과 독립운동

〈1936년 8월 24일, 태풍, 경성에서〉와 〈기쁜 마음〉, 두 이야기를 표로 비교해봅시다.

〈1936년 8월 24일, 태풍, 경성에서〉		〈기쁜 마음〉
<p>이 작품의 사건은 1936년 8월 24일, 경성의 한 조선인 운영 신문사에서 발생한다. 독일 베를린올림픽 마라톤에서 손기정 선수와 남승룡 선수가 각각 1위와 3위를 차지한 직후, 일본 제국주의 아래에서 조선인 선수가 일본의 국기를 단 채 출전해야 했던 현실이 배경이 된다. 시상식 사진 속 손기정의 가슴에는 일장기가 달려 있었고, 이를 신문에 어떻게 실을지를 두고 기자들은 갈등한다. 일본 언론이 조선인 선수를 일본의 영광으로 왜곡 보도하는 상황에서, 조선인 기자들은 일장기를 그대로 실을 수 없다고 판단한다. 결국 이들은 단순한 수정이 아닌, 청산가리 용액을 사용해 일장기를 완전히 말소하는 위험한 선택을 한다. 이 결정은 총독부의 검열과 신문사 폐간, 체포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으며, 윗선의 지시 없이 기자들의 양심과 책임감에 따라 이루어진 행동이었다.</p>	<p>사건 요약하기 —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일어났나요?</p>	<p>이 작품의 사건은 3·1절을 전후한 현재 시점, 화자와 할머니가 서울의 딜쿠샤를 방문하며 전개된다. 할머니는 자신의 생일이자 3·1절을 맞아 오래전부터 가보고 싶었던 딜쿠샤에 가자고 제안하고, 화자는 이에 동행한다.</p> <p>딜쿠샤는 일제강점기 조선에 거주하며 AP통신 특파원으로 활동했던 앨버트 테일러와 그의 아내 메리가 살던 집으로,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서와 관련된 소식이 해외로 전달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공간이다. 작품에서는 세브란스병원 간호사들이 일본 경찰의 단속을 피해 독립선언서 사본을 숨기고, 이를 계기로 독립의 소식이 외신을 통해 세계에 알려지는 과정을 서사적으로 재구성한다(간호사가 침대 밑에 숨긴 설정은 소설적 각색임).</p> <p>이 방문을 통해 화자는 자신의 왕할머니가 세브란스병원 간호사로서 3·1운동의 한 장면에 참여했음을 알게 되고, 독립운동이 영웅 몇몇의 업적이 아니라 이름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행동한 평범한 사람들의 용기로 이루어졌음을 깨닫는다. 작품은 과거의 역사와 현재의 체험을 겹쳐 보여주며, 3·1운동의 정신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성찰하게 한다.</p>

공통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 작품 모두 총과 무장투쟁이 아닌 언론·기록·전달 행위를 통해 독립운동에 기여한 모습을 그린다. ● 두 작품 모두 역사에 크게 남지 않은 평범한 개인들의 선택과 결단에 주목한다. ● 기자, 사진 담당자, 간호사, 외국인 언론인 등은 영웅으로 호명되지 않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행동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열을 뚫고 왜곡을 바로잡는 '내부 저항'의 성격이 강하다. 사진 한 장을 어떻게 실을 것인가가 곧 저항이 된다. ● <1936년 8월 24일, 태풍, 경성에서>는 사건 당시의 긴박한 현재 시점에서 전개되며, 선택의 위험성과 공포가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차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경을 넘어 사실을 알리는 '외부 전달자'로서의 언론 역할이 강조된다. 조선의 현실을 세계에 알리는데 초점이 있다. ● <기쁜 마음>은 현재의 화자가 과거를 되돌아보는 방식으로, 기억과 체험이 겹쳐지며 역사에서 '살아 있는' 역사로 이어지는 서사로 전개된다.
<p>이 이야기에서 언론은 왜곡된 현실에 맞서 진실과 정체성을 지켜내는 저항의 역할을 수행한다. 작품 속에서 손기정의 올림픽 우승은 일본제국의 선전 도구로 이용되었고, 언론 보도는 엄격한 검열 아래 놓여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인 언론인들은 손기정 선수의 가슴에 있던 일장기를 말소한 사진을 실어, 일본이 강요한 허위를 거부하고 조선인의 존재를 드러내고자 했다. 결국 이 작품에서 언론은 총을 들지 않고도 사진과 기사로 식민 지배의 논리를 흔들며, 또 하나의 독립운동의 주체로 기능한다.</p>	언론의 역할 — 이 이야기에서 언론은 어떤 역할을 했나요?	<p>이 이야기에서 언론은 독립운동의 사실을 세계에 전달하는 '연결자이자 증폭기' 역할을 했다. 작품 속에서 조선 내부의 만세 운동과 독립의 열망은 일본의 강력한 검열로 인해 밖으로 드러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때 AP통신 특파원이었던 앨버트 테일러를 통해 독립선언서와 3·1운동의 실상이 해외로 전달되면서, 조선의 독립 요구는 국제 사회의 문제로 확장된다. 즉 언론은 조선인들의 외침을 국경 너머로 옮겨, 일본의 식민 지배를 세계가 인식하도록 만드는 통로가 되었다.</p>

2. 독립운동에서 언론은...

- 독립운동에서 언론은 ()이다. 왜냐하면, ()
- 언론의 기록은 오늘날 우리가 독립운동을 기억하는 데 ()을 한다.



7차시: 세계지도로 정리하는 17편의 이야기

한국의 독립운동은 한반도 내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많은 독립운동가들은 만주, 중국 본토, 일본, 미국 등 세계 여러 지역을 오가며 각자의 방식으로 독립을 위해 싸웠습니다. 17편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실제 역사적 사건과 장소를 바탕으로, 한국 독립운동이 어떤 지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었는지를 살펴봅시다.

1. 17편의 이야기 속 사건이 각각 어느 지역에서 일어났는지 정리해봅시다.

1. 흰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하이(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창설, 1931년 한인 애국단 창설) ● 후난성 창사 남목청(1938년, 조선혁명당, 한국국민당, 한국독립당 3당 합당 논의와 이운환의 남목청 피습 사건 발생) ● 서울(1949년 6월 26일, 김구 암살 사건)
2. 먹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먹〉은 서울을 배경으로 화자가 3·1운동에 참여했던 것을 감옥에서 회상하는 내용임) ● 전국(3·1운동은 전국적이고 전국민적인 독립운동으로 5월 말까지 전국에서 1,744회에 걸쳐 전개됨)
3. 한양으로 가는 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양주에서 한양(서울)으로 이동(경기도 양주에서 13도 창의군이 결성되고, 한양을 탈환하고 고종황제를 구출하기 위해 한양으로 진격하던 중에, 일본군에 의해 저지당함.)
4. 귀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조선국권회복단과 대한광복회를 결성하고 총사령으로 활동했던 박상진은 독립군 양성을 지원하던 중 1918년에 체포되었으며, 사형을 선고받아 1921년 대구형무소에서 순국함)
5. 단 하나의 후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경북도 회령군(1920년 무장 독립운동 단체인 북로군정서 소속인 윤준희는 조선은행 회령 지점에서 간도 용정으로 이송 중이던 15만 원을 탈취함)
6. 만주에 뜬 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흥안령(소흥안령 왕청문에 대한통의부 군사훈련소가 설치되었고, 신흥무관학교 교관으로 독립군을 양성했던 신팔군은 1924년 남만주 일대의 독립군을 통합한 대한통의부 사령관에 취임함. 그러나 그해 7월, 만주 흥경현(현 중국 랴오닝성 푸순)에서 일본군의 사주를 받은 마적 300여 명의 공격을 받아 독립을 보지 못한 채 전사함)
7. 이름 없는 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주, 북간도(채찬은 신흥무관학교에서 군사학을 전공하고, 이후 독립군 양성과 현장 지휘에 힘씀. 대한통의부의 현장 지휘관으로 활동하며 무장투쟁을 수행함)

8. 가짜 여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우회는 서울 및 전국 각지, 일본, 만주 등 국내외에 지부를 두었음(1927년 5월 27일 여성 지위 향상을 목표로 창립된 전국 여성운동 단체)
9. 철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박차정은 부산 동래 출신으로, 일신여학교 재학 시절 항일 학생운동을 주도함.) ● 서울(근우회에 참여하여 중앙집행위원, 상무집행위원으로 선출되어 선전조직과 출판부문을 담당함)
10. 조선 여자 남자 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주 하얼빈(1932년 국제연맹 리턴 조사단이 하얼빈에 오자, 흰 수건에 '한국독립원'이라는 혈서를 써서 조사단에 보내 독립을 호소함)
11. 내 이름은 민지사, 조선 여인들을 돕지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이사벨라 멘지스는 호주 출신 선교사로, 일신여학교 초대 교장 겸 사감교사로 활동함. 1919년 3월 11일, 일신여학교 학생과 교사의 만세운동을 지원하였음)
12. 기쁜 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앨버트 테일러는 미국 언론인으로 AP통신 특파원으로 활동하며 1910년대 서울에 거주함. 1919년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서 관련 소식을 해외에 전달하고, 제암리 학살 사건을 취재하고 보도하여 일제의 만행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 기여함)
13. 슈퍼스타 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베를린(1936년 8월 9일, 독일 베를린올림픽 마라톤에서 올림픽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획득함)
14. 1936년 8월 24일, 태풍, 경성에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1936년 베를린올림픽에서 손기정이 마라톤 금메달을 획득하자, 동아일보는 보도 사진에서 그의 가슴에 달린 일장기를 말소해 게재함)
15. 한 알의 오렌지라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양(송인상업학교의 이하전과 학생들이 모여 조선 독립을 목표로 하는 축산계를 조직함)
16. 나는, 돌아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안후이성 푸양, 상하이(중국 안후이성 푸양의 한국광복군 제3지대에서 활동하며 독수리 작전을 위한 OSS훈련 참여, 1945년 광복 후 상하이지구 특파원으로 파견되어 치안 유지 활동 참여)
17. 손주에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1943년 광주사범학교 재학 시절, 이석규는 '무등독서회'를 조직하여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서적을 읽고, 항일 전단과 벽보를 배포함)

※ 참고자료

—한국독립운동정보시스템 <https://search.i815.or.kr/main.do>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https://search.i815.or.kr/dictionary/main.do>

—우리역사넷 <https://contents.history.go.kr/mobile>

2. 위에서 정리한 지역을 세계지도에 표시해봅시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17편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함께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8차시: 시로 읽는 독립운동



총과 칼을 들고 거리로 나서 싸운 독립운동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일제강점기에는 글과 문학을 통해 저항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이 17편의 작품 가운데 <귀곡>에서 잠시 언급되는 이육사 시인입니다(p. 61 주석). 대구형무소의 차디찬 방 안에서 염원했던 독립의 정신은 박상진에서 이육사로,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이육사 시인은 억압과 감시 속에서도 독립을 향한 열망을 담은 시 쓰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육사의 시를 통해 당시의 시대 상황을 되돌아보고, 시인이 어떤 목소리로 저항했는지 살펴봅시다.

1. 시인 이육사 알아보기

이육사 시인의 사진	이육사 시인에 대한 정보 정리하기
참고 문헌 작성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2. 이육사 시인의 시 읽기

① 이육사 시인의 시를 한 편 골라서 읽고, 아래에 필사해봅시다.

② 시에서 일제강점기의 시대 상황이나 당시의 현실을 드러내는 표현을 찾아 적어봅시다.

③ 시에서 분노, 저항, 다짐, 희망, 절망, 침묵 등 감정이나 태도가 드러나는 시어를 찾아봅시다. 이육사 시인은 어떤 감정을 드러내고 있나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함께 적어봅시다.

9차시: 느티나무가 버드나무에게



〈이름 없는 나무〉의 이야기를 기억하나요? 대한통의부의 대장은 독립운동 과정에서 쓰러져간 동지들의 가족과 아이들을 끝까지 돌보며, 아이들이 자신을 ‘아바이’라고 부르도록 했습니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마을에 내려갔던 그는 결국 일본군에게 붙잡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가 대한통의부의 현장 지휘관이었던 채찬과 함께 마을 어귀에 함께 심었던 느티나무와 버드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독립운동과 그 이후를 상징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작품 속 이야기를 바탕으로 아래 활동지를 작성해봅시다.

1. 버드나무와 느티나무는 각각 무엇을 상징하나요? 작품 속 인물들의 선택과 대사를 근거로 그 의미를 설명해보세요.

버드나무	버드나무는 독립운동을 수행한 당대의 독립군, 그리고 그들의 희생을 상징한다. 채찬(백광운)은 버드나무가 “빨리 자라 금방 그늘을 만들어준다”고 말하며, 당장의 삶을 지탱해줄 실질적인 역할을 중시한다. 이는 광복 이전, 지금 당장 싸워야 했던 독립군의 현실과 닮아 있다. 이후 대장이 말한 “뿌리는 얇게 내리지만 금방 퍼지고 넓게 자라는” 나무라는 설명은, 발붙일 땅도 없이 사방으로 흩어져 싸워야 했던 독립군의 삶을 직접적으로 비유한다. 또한 벼락을 맞고 사라진 뒤 마루가 되어 사람들의 일상에 스며든 버드나무는, 자신은 사라졌지만 타인의 삶을 떠받치는 희생을 보여준다. 잊히되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존재, 바로 독립군의 모습이다.
느티나무	느티나무는 광복 이후를 살아갈 후손들, 그리고 지속되는 삶과 미래를 상징한다. 대장은 “천년을 버티는 뿌리 깊은 느티나무”를 주장하며, 싸움이 자신들 세대에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말한다. “우리 아그들이 이어서 싸움을 계속할지 모를 일”이라는 대사는, 독립운동이 단기적인 투쟁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역사적 사명임을 드러낸다. 광복 후 다시 찾은 마을에서 느티나무만 남아 크게 자라 있는 모습은, 독립운동의 결과로 후손들이 뿌리내리고 살아가고 있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이다. 느티나무는 버텨내고 이어지는 삶, 그리고 기억 위에 세워진 미래를 의미한다.

2. 버드나무가 마루가 되어 사람들의 일상에 스며든 장면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작품 속 버드나무의 역할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세요.

※ 정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세요.

예시 답안: 작품에서 버드나무가 벼락을 맞아 사라진 뒤 마루가 되어 사람들의 일상에 스며든 장면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이 눈에 띄지 않는 형태로 현재의 삶을 떠받치고 있음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버드나무는 빠르게 자라 그늘을 제공하고, 이후에는 마루가 되어 사람들이 쉬고 머무는 공간이 된다. 이는 독립군들이 자신의 삶을 앞세우지 않고, 사라진 뒤에도 다른 이들의 일상을 지탱하는 역할을 했다는 점과 닮아 있다. 사람들은 마루 위에 앉아 생활하지만, 그 마루가 버드나무였음을 인식하지 않는다. 이는 독립운동의 희생이 시간이 흐르며 점차 잊혀지는 현실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드러낸다. 즉 버드나무가 마루가 된 모습은, 잊혀졌지만 사라지지 않고 오늘의 평범한 일상에 스며든 독립운동의 의미를 상징한다.

3. “잊혀지지만, 잊혀질 수 없는 우리”라는 표현을 바탕으로, 이름 없이 사라진 독립운동의 기억을 우리는 어떻게 이어가야 할까요?

※ 정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세요.

예시 답안: “잊혀지지만, 잊혀질 수 없는 우리”라는 표현은 독립운동의 많은 희생이 시간이 흐르며 이름과 모습은 사라질지라도, 그 의미까지 사라져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따라서 이름 없이 사라진 독립운동의 기억은 단순히 연도와 사건을 암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들이 겪었을 고통과 선택의 이유를 이해하려는 태도를 통해 이어가야 한다.

4. 앞에서 탐색한 느티나무와 버드나무, 두 나무의 의미를 떠올리며, 느티나무의 시선으로 버드나무에게 편지를 써봅시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독립운동가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기억하고 있는 것,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그 뜻을 이어가고자 하는지를 편지에 담아보세요.